

## 월 양 계

11월호

- ◎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라니냐 현상이 6년 만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 겨울 우리나라는 이상 저온 현상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따뜻한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즉, 평균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으나 춥거나 더운날이 교차하는 변동스러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단열 등 겨울 채비를 단단히 준비해야 하겠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 평균 보다 섭씨 0.5도 이상 낮아지는 현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일컫는다.
- ◎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되어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이루어진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방역대책과 차단방역의 중요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달 본회에서 주최한 전국양계인대회에서도 참석자를 대상으로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아울러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은 농가들 사이로 확대되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육계 대의원총회가 이달 15일로 잠정 확정되면서 육계자조금사업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4차례나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되면서 차기 대의원총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감사를 순조롭게 선출하고 자조금사업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확고히 다져지길 바란다.
- ◎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다. 지난달 덴마크육류수출협회에서 개최했던 가금육 세미나에서는 한EU FTA 타결을 대비해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국의 닭고기가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덴마크 양계장에서는 살모넬라가 2%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캄필로박터균이 음성으로 나오는 농장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양계산물 안전성에 혼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 닭고기에 국내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양계산물 안전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